

역사 대중화 이끈 '재야사학의 별' 지다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별세
광주고 출신...독학으로 역사 공부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등 100여권 남겨
역사문제연구소 꾸려 동학 관련 책 출간도



18일 별세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역사를 일반인의 시각으로 풀어낸 '재야사학의 별'이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글을 쓰면서 타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어요. 나만의 윤리기준을 지키는 것이죠. 좋은 사람은 좋게, 나쁜 사람은 나쁘게 써야지요.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을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 핍박하고 때려 잡은 사람을 좋게 쓰면 되나요.”

18일 오전 향년 84세로 별세한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李維和) 선생이 지난 2014년 광주일보 전문매거진 '예향' (10월호)과 인터뷰 당시 했던 말이다.

근현대사를 몸으로 부대껴 온 선생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목소리를 냈다. 그를 가리켜 '재야사학의 별'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 형식으로 역사를 서술했다.

선생은 지금까지 공저를 포함해 무려 100여 권 가까운 책을 썼다. 이를 토대로 선생은 민중사, 문화사, 생활사라는 영역을 개척했으며 제도권 학자의 업적을 능가했다. 흔히 재야사학을 강단사학과 대비하지만, 선생이 이룬 업적은 전문 학문 종사자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이다.

고인은 1936년 대구에서 주역 대가인 야산 이달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 '이화'(維和)는, 부친이 주역 팔괘에 따라 지어졌다고 한다. 이(離)는 팔괘 중 하나이며, 화(和)는 돌림자라고 했다. 유년시절 부친을 따라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가솔을 고학을 하다 광주에 정착한다. 이후 광주고에 진학하고, 훗날 서라벌 예술대학에 진학해 문학과 역사 공부를 했다.

대학을 중퇴한 이후에는 외환원, 학원 강사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다. 그러는 중에 독서에 심취할 만큼 역사와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역사학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할 때 이이화를 우회하고서는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역사문제연구소를 꾸려 동학과 관련한 30권의 사료 총서를 출간한 선생의 열정과 지적 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현재와 미래, 자본주의의 문제를 정신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동학의 정신은 3·1운동, 4·19, 광주항쟁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이 반드시 역사의 정기가 되어야 합니다. 동학도들이 절규했던 인권문제는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다만 동학정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 정신을 문화예술 작품으로 승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사 이야기' 전집

'예향' 인터뷰 당시 선생은 동학혁명 정신이 오늘의 문제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989년 역사문제연구소 부설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그가 역사를 독학으로 공부하게 된 것은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남북분단과 식민지 문제를 고민하다 역사공부에 빠져들었다. 그에 따르면 “기존 역사서는 승자 위주의 기록으로 지배세력 중심이어서 민초들의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의 대표작인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22권)는 10여

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이다. 2015년에는 일부 오류를 수정해 개정판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 '인물로 읽는 한국사', '주제로 보는 한국사', '전봉준 혁명의 기록' 등도 펴냈다.

고인은 역사책을 기술하는 데 있어 시대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일반적인 역사가가 특정 시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해 선생은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오갔다. 그는 또한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문헌사와 생활사'를 다루기도 했다.

특히 그는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했다. 피해자인 우리나라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거부하는 데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태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켜 많은 이들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일본은 독일과 다르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철저하게 글을 써서 밥벌이를 하는 '집필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집필 노동자 외에 그는 바둑 예찬론자이기도 하다. 아마바둑 5단이었던 그는 '글감육'에 갇혀 있다가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바둑돌을 잡곤 했다. 생전의 그는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했다.

한편 고인은 단재상, 임창순 학술상을 받았으며 2014년 원광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에는 민족연구소에서 개관한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도 맡았다. 유족으로 부인 김영희 씨와 아들 응일 씨, 딸 응소 씨가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비극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 주목

양수덕 시인 '새, 블랙박스' 내



한 빛에 지나지 않고 본다. “봄은 거짓말 미래의 무덤”이라는 표현은 전망부재의 암울한 시간을 상징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의 손이 허공으로 날아다녔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은 차갑고 외로운 누더기와 같은 술결로 숨을 쉬는 나그네는 검은 장미가 피었다고 하는데 소외된, 사랑이 없는...”

200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양수덕 시인이 네 번째 시집 '새, 블랙박스' (상상인)를 펴냈다.

양 시인은 이번 작품집은 비극적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주시하는 작품들이 다수다. 그러나 그 비극은 전철의 문학평론가의 말대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독자적 삶을 개척해나가는 인물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봄은 빛의 무서운 점층법/ 눈이 아파 짓물러/ 배경을 구기며 간다/(중략) 봄은 거짓말/ 미래의 무덤이라고 지금은 중얼거릴 때”(‘봄을 탄다’ 중에서)

‘봄을 탄다’는 암울한 현실을 빚낸 작품이다. 화자는 그저 봄날은 화사하게 지장

그러나 언급한대로 양 시인은 절망이나 암울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의 시는 특정 개인의 삶보다는 그 개인들이 모인 세상을 주요 탐색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다.

전철희 평론가는 “비록 그는 우리가 갑갑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시인이지만 이번 시집에서 펼쳐낸 상상력의 강도와 밀도를 볼 때 양수덕의 시는 날개를 단 것처럼 더욱 자유롭게 비상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평한다.

한편 양 시인은 지금까지 시집 '산발' '봄은 물고기', '가벼운 집', '우리 동물원'과 산문집 '나는 빈둥거리고 싶다'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전문인력아카데미-프로젝트 랩' 참가하세요

4월3일까지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이 ACC 문화예술전문인력 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오는 4월3일까지 'ACC 전문인력아카데미-프로젝트 랩' 교육참가자를 모집한다.

'ACC 전문인력아카데미-프로젝트 랩'은 전문인력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신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모에 선정된 참가팀은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워크숍을 매개로 창의적인 콘텐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중 최대 4개월 이내이다. 아시아의 몸짓(무용, 퍼포먼스 등)과 아시아 스토리(인물, 신화, 민담, 전설

등)를 주제로 열리며 선정된 팀은 ACC의 공간과 시설 등을 활용하고 멘토의 도움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 운영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4월3일까지이며, 최종 참여 팀(3팀 이내) 발표는 4월13일에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A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ACC 전문인력아카데미는 예비전문가 대상의 '정규과정'과 재직자 대상의 '역량강화과정'으로 진행된다. 정규과정은 전문 직군별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는 '특화강좌', 특화강좌 수료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스타트 랩', 그리고 이번에 공모하는 '프로젝트 랩'으로 구성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참여 시설·단체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공·민간 시설 및 단체를 오는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동네 책방 등 지역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 전공자가 협업해 인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에는 인문 탐방, 글쓰기, 인문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올해는 100건을 선정해 인문 전공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권역별로 공동연수,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해 교류와 소통은 물론 지역 단위 인문 활동의 장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46개 생활문화시설의 인문 프로그램 100건을 지원했다. 참여를 원하는 생활문화시설은 지역 특성과 지역민 수요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인문 전공자와 함께 기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출판진흥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에 다음달까지 예술행사 2511건 취소·연기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사태로 예정된 공연과 전시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문화예술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18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 취소 또는 연기된 공연, 전시 등 현장 예술행사는 25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523억원

으로 추산되며, 예술인 10명 중 9명의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연기된 예술행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6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경북은 156건, 부산 150건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2일 한국예총의 10개 회원협회와 전국 광역시·도·시군 156개 연합회를 대상으로 이대

일과 팩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116개 회원협회·연합회 가운데 163곳이 응답했다.

한국예총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현장 예술인 및 단체의 피해에 따른 생활·운영자금 지원 등 긴급 조치를 요청했으며 문화예술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법적 기반을 갖춘 종합예술단체를 설립하고,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예술정책, 창작환경, 향후 기대 등을 수치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체감지수' (가칭)의 개발·도입도 주문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대성각 중화반점</p> <p>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p>	<p>남 문 냉 동</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p>	<p>풋젠광주센터</p> <p>동구금남로4가치파연전철역부근3번출구 거동이 불편하신분, 어깨·허리·무릎·관절이 불편하신분 풋젠 자석 쿠션 신발 ☎ 062)232-6625, 010-3640-6625</p>	<p>동 양 철 학 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우리 뷔 페</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청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p>개성전통한방삼계탕</p> <p>서구 치평동 케이월하이빌 1층 삼계탕 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p>	<p>남약장례식장</p> <p>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철·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영가제공 ☎ 061)285-0444</p>
<p>향 촌</p> <p>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 (차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 062)371-0583, 010-3947-0005</p>	<p>김 동 일 슈 프</p> <p>동구 지호로42(자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장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p>	<p>광명천막기업</p> <p>북구 천변우로 285-1 (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량방,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p>	<p>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p> <p>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p>
<p>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p> <p>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 062)511-3388</p>	<p>유가네한우곰팡 광주대인점</p> <p>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김고진 곰팡의 맛! 한우맑은곰팡,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p>	<p>연아불교용품</p> <p>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 ☎ 061)334-0088</p>	<p>고 전 방</p>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 062)224-4869</p>
<p>박 당 화 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p>신 신 예 술 의 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p> <p>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p>	<p>천 을 귀 인</p> <p>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공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p>
<p>석 당 화 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초 대 화 랑</p> <p>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꽃샘추위</p> <p>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공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p>	<p>초 대 화 랑</p> <p>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